

소비자에 대한 친환경농업 교육의 성과와 과제

권 광 식

경실련 환경농업실천가족연대 상임대표, 한국방송대 교수

1. 경실련 환경농업실천가족연대가 걸어 온 길

가. 설립 목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환경농업실천가족연대(Environmental-Agro Family Network of CCEJ)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창립이념에 입각하여 환경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신뢰와 가족애를 바탕으로 죽어 가는 흙과 물을 되살려 우리의 환경과 생명을 지켜 나감과 동시에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함께 확보하는 실천적 연대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주요 사업

- 환경농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 또는 관련단체간의 유대강화와 생산물의 구·판매 알선
- 환경농산물 생산자의 효과적 생산·판매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 기술지원, 구·판매 홍보, 관련제도 개선 제언, 회원과 시민들의 고충 처리
- 도시민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과 농산물 소비행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환경농업 및 위해환경 추방에 관한 감시·계몽교육의 실시와 정보 제공
- 친환경적 농업생산 기반 및 건전 소비문화 구축을 위한 정책건의, 품평회, 전시판매 행사, 연구발표회 및 출판홍보, 친환경농법 및 농정의 감시
- 지속적이고도 효과적인 환경농업운동의 실천에 필요한 활동 기금 및 사업비 조달을 위한 공익적 수익사업

다. 주요 연혁

- 1999. 2. 6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의 특별사업으로 (가칭)환경농업실천가족연대 설립 결의
- 1999. 4. 2 경실련 환경가족실천가족연대 창립
- 1999. 4.17 친환경농업 주말농장 개장(52명)

- 1999. 6. 17 「환경농업 목요강좌」 개설
- 1999. 7. 1 「환경농산물 정보센터(특별기구)」 개설
- 1999. 10. 24 <땅올림> 창간호 발간
- 1999. 10. 25 친환경농업 국제심포지엄 개최
- 2000. 2. 28 창립1주년 기념 총회 및 친환경농업 심포지엄 개최
- 2000. 7. 27 어린이 땅물지킴이 체험교실 운영
- 2000. 12. 19 서울특별시 교육청 특별직무 연수기관 지정
- 2001. 6. 16 청소년 친환경농업 교육농장 개장
- 2001. 8. 6 서울특별시 특수분야 연수 - 생명과 환경 지도교사 연수

라. 임원 구성

- 교문(김성훈 중앙대 교수 외 5명)
- 지도위원(김완배 서울대 교수 외 10명)
- 상임공동대표(권광식, 방송대 교수)
- 공동대표(윤석원 중앙대 교수 외 4명)
- 운영위원(20명)
- 사무처(3명)
- 회원 수 : 총 2,450명

2. 친환경농업 소비자교육 : 주요 내용과 성과

가. 소비자를 위한 친환경농업 현장체험교육(금요강좌)

1999. 6. 1부터 도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농민-소비자-협동조합-정부간의 연대사업'으로 친환경농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자체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도시 소비자 강좌

- 주제 1. 지금 우리에게 왜 친환경농업인가!
- 주제 2. 친환경농산물 이렇게 생산해요. / 친환경농산물 이렇게 먹어요.
- 주제 3. 친환경농업 실천현장답사(경기도 일원 친환경농업 농장)
 - ※ 점심식사는 친환경농산물로 제공하고, 현장에서 시식회를 가짐

- 주요 성과

- 1999년 : 총 32회에 총 2,092명 수료
- 2000년 : 총 25회에 총 1,137명 수료
- 2001년 10월 현재 : : 총 8회에 360명 수료(현재 진행 중)

○ 학생교육

- 도·농 '두레'형 땅물지킴이 학교 운영 : 초등학교 학생 총 100명 수료
- 친환경농업 감자와 고구마 심고 수확하기 : 초등학교 총 1,320 참가

○ 교사 및 사회지도자 교육 : 생명과 환경지도교사 직무연수 실시/일반연수 지원

2001년 여름방학 연수에서 제1기 43명 수료

○ 회원교육 : 사랑의 주말농장 운영 : 총 200명 활동 중

나. 전달매체를 통한 교육

○ 친환경농업 종합 교양전문지인 '계간 <땅울림>' 발간

1999년 10월 24일 창간, 매회 7,000부를 발행하여 회원과 서울시내 각급 학교, 농업·환경관련 단체, 기타 언론사, 지자체, 도서관 등에 무료 발송, 현재 제5호 발간 예정

○ 친환경농업 다큐멘터리 6부작 제작·배포

한국, 일본, 유럽의 친환경농업 현황(2000.3, 방송대학 위성TV제작·방영)

3. 친환경농업 소비자 교육의 과제

가. 친환경농업 생산자 교육과 생산자 지원

첫째, 친환경농업 생산자들에게 다양한 정보제공

성공사례 친환경농법이나 친환경농업 자재 보급·과학화를 통해 농민들이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 나아가 토양개량과 농업용수의 수질보전을 위한 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홍보한다.

둘째, 친환경농업 생산·유통업자와 정책 담당자에 대한 친환경농업의 이념교육 강화

정부와 협동조합, 생산자 측에서는 아직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친환경농업을 단순하게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질비료를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은 경종농업과 축산, 특용작물, 그리고 다른 경제부문간의 유기적인 순환농업(循環農業)을 통해 '땅과 물, 생명의 밥상'을 살리는 것이 지구환경과 인류의 생명을 보전하고 '지속가능 한 발전'을 위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게 교육해야 한다.

셋째, 친환경농업 현장의 주변환경개선 선행 홍보

친환경농업은 농법에 앞서 우선 주변환경이 건전해야 한다. 실제로 현장견학을 갔을 때, 제대로 발효되지 않은 공장퇴비나 계분 등의 냄새, 폐비닐, 오수 등으로 오염된 주변환경을 보고 실망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따라서 도시 근교에 농법과 주변환경 면에서 우수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를 선정하여 현장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생산농민이 직접 강사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다양한 공익적 외부효과가 큰 벼농사를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운동 전개

2001년 현재 쌀의 수급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쌀 생산은 벼 재배면적의 감소(1975년에 비해 85% 수준)에도 불구하고 생산기술의 발전으로 생산량은 113%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국민소득의 증대로 쌀에 대한 수요는 연평균 2%이상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농산물 수입개방과 겹치면서 결과적으로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나아가 환경오염과 지력소진으로 인한 토지생산성의 저하로 지속가능 한 농업생산을 제약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특히 WTO체제의 전개와 CODEX 기준의 시행이라는 국내외적 환경 하에서 한국의 농업(쌀)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은 벼의 생산을 친환경농법으로 점차 전환해 나가는 것이다. 이 경우 1999년부터 상수원보호지역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직불제를 확대 적용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수입농산물에 대응하여 친환경농산물을 가공식품으로 개발

유아와 청소년들이 많이 먹는 각종 식품을 친환경농산물 원료로 우선적으로 대체 하도록 홍보한다.

나.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가격과 신뢰성 문제 해소방안

첫째, 학교 등 단체급식을 친환경농산물로 점차 전환

학교급식의 경우는 어느 모로 보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 납품단가를 낮추기 위해 값싼 수입 농축산물과 불량한 재료 때문에 수천 건의 식중독 사고가 나서 청소년기의 건전한 식습관과 건

강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급식은 청소년들의 건강을 사회간접자본의 개념에서 접근하여 재료를 친환경농산물로 납품함으로써 대량유통을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자와 각 학교를 하나의 단위로 묶는 컨소시엄 구축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가 주도해야 한다. 특히 요즘처럼 쌀 과잉으로 인한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선 친환경농업 쌀부터라도 학교급식(공공기관이나 병원의 구내식당 등도 포함)으로 납품할 수 있는 방안을 홍보·교육한다.

둘째, 사이버 정보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생산자-소비자 연대

사이버 쇼핑몰을 개설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필요한 친환경농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메신저역할을 수행한다. '사이버 생협'을 중심으로 하여 참여자들간의 협동네트워크로써 실천해 나간다. 특히, 명절 때 친환경농산물 선물주요받기 운동 전개,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 애용하기(크리스마스 등 특수시기에 서양 식품대체)운동을 전개하고,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 대중적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셋째,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사업 시행

최근에 정부가 시행하던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제도가 민간에 이양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민단체로서의 명예와 신뢰도를 바탕으로 인증사업을 시행한다. 인증사업의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적인 민간단체들과의 연대를 한다. 특히 친환경농산물의 종류를 유기재배와 무농약재배 중심으로 점차 이원화되도록 유도한다.

다. 소비자 및 청소년교육

첫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현장교육의 다양화와 '두레'정신 부활

지금까지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교육은 교육생의 동원곤란, 교육비용 문제 등의 요인 때문에 '교육을 위한 교육'이라고 비판받을 만한 사례가 있었다고 본다. 교육 대상자의 연령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 프로그램을 단순·반복함으로써 비효율적인 교육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이제는 '실적 위주의 교육에서 품질 위주의 교육'으로 기초를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대상자 층의 다양화, '사회적 이슈-성공사례-농사체험-친환경농산물 시식' 중심으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매체 개발이 필요하다. 강사도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업자, 가공업자의 참여 비율을 늘려야 한다.

친환경농업은 상생(相生)을 위한 생명산업이므로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두레'정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환경호르몬문제, 유전자조작농산물(GMO), 각종 유해 식품첨가물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과 결혼적령기의 청년층에 대한 환경·생명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반복·심층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육이 일회성 단순교육 위주였다. 이러한 교육은 성과 면에서 비효율적이었다. 따라서 한번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소수의 인원이라도 더욱 심층적이고 실천단계까지 갈 수 있는 후속 프로그램을 제공·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땅울림>과 같은 종합교양정보지 발간을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사이버 친환경농업교육 강화

도시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시간적·공간적·사회적인 환경을 이유로 환경과 생명의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참여 기회를 회피하고 있다. 특히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일수록 과학과 편의주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양하면서도 흥미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이가 대학 등 기존 교육기관이나 사이버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인터넷을 통한 자연환경교육을 친환경농업을 중심으로 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넷째, 학교에서의 자연환경 현장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모형 개발과 보급

학생과 교사집단은 친환경농업의 이념과 실천과제를 교육하였을 때 교육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집단이다. 학교와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 교육용 교재를 개발 중에 있다.

어린이 프로그램의 경우 눈 높이 교재와 프로그램의 운영이 중요하므로 '상징교육'(예, 반딧불이, 매뚜기 등)이 중요하다.

교사들의 경우, 직무연수를 할 때 생명과 환경 지도자수료증을 교부하여 이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친환경농업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양성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학생-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시행한다.

다섯째, 친환경농업 관련기관의 지도자 교육 강화

환경과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공무원, 각 기관의 종사자, 기업체 담당자들에게 친환경농업 교육을 강화한다.

이제 친환경농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숙명이다. 따라서 친환경농업 교육도 농법보다는 이념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현 단계에서 친환경농산물은 '수요가 공급을 창조'하므로 소비자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자신감과 신뢰성 조성, 환경정의·생명정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친환경농업 교육·홍보의 지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